

2026년도 교육혁신포럼: 시대를 품고, 세계를 잇다

지방시대의 신성장동력, 대학

2026.7.22.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CONTENTS

01. 적자생존 (適者生存)
02. 지역소멸 위기, 지역 대학의 중요성
03. 국정방향
04. 지역대학을 지역성장의 엔진으로
05. 드리고 싶은 말씀

01. 적자생존 (適者生存)

“결국 살아남는 종(種)은
강인한 종도 지적인 종도 아닌
변화에 가장 잘 대응하는 종이다.”

1953년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2026년 세계 5위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73년

AI 대전환과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답은 **연구개발(R&D)**과 **고등교육의 혁신**에 있습니다.

지역혁신의 최전선에는 지역의 미래인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이 있습니다.

지역대학은 더 이상 변화를 좇는 기관이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지역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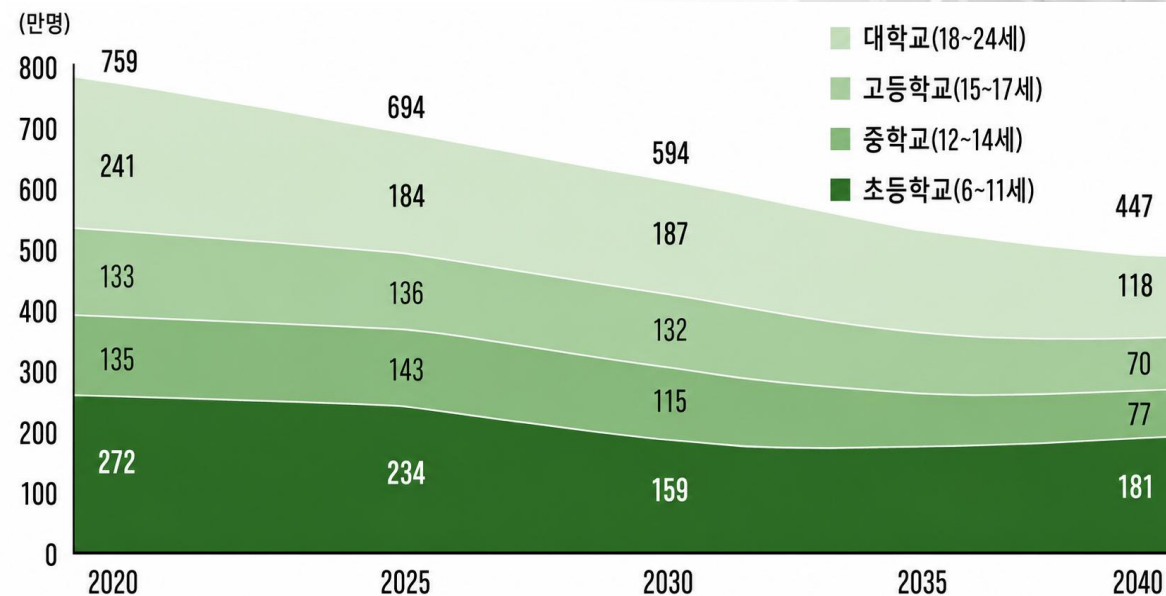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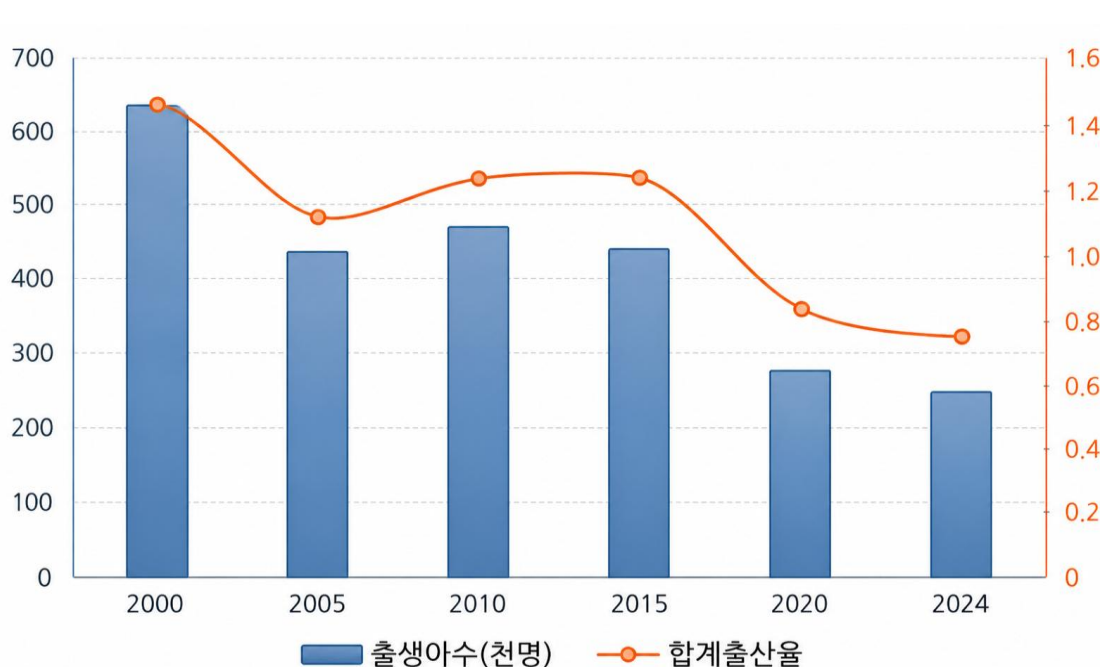
02. 지역소멸 위기, 지역 대학의 중요성

2. 지역소멸 위기, 지역대학의 중요성 – 지역의 현실

❖ 출생률과 학령인구 급감

- 지속적인 출생률 감소 → 출생아 수('00 : 64만 → '24 : 23.8만명, ▼ 62.8%), 출생률('00 : 1.48명 → '24 : 0.75명, ▼ 49.3%)
- 대학 입학정원 대비 진학자 부족현상 심각 우려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2022)
교육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2021)

2. 지역소멸 위기, 지역대학의 중요성 – 지역의 현실

❖ 지역대학 신입생 감소

- 학령인구 감소 영향이 특히 수도권보다 지역대학에 집중
- 지역 대학의 신입생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 재정절벽 및 교육여건 악화 우려**

학령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대학 쏠림’ 더 심해져 – KBS (2025.10.11.)



2045년 대학 신입생 23만 명으로 '반토막'... 지방대 정원감축
수도권보다 3배 빨라 – 매일신문 (2025.10.30.)

2043년 신입생 총원율 53% 전망... “지방 사립·전문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재편해야” – 한국대학신문 (2025.11.20.)

20년 뒤, 신입생 ‘절반’ – 지방대 생존전략은?

– TBC (2025.11.27.)

2. 지역소멸 위기, 지역대학의 중요성 – 지역의 현실

❖ 수도권 집중화· 지역 청년인구 유출 심화

- (수도권 집중화)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경제·산업이 집중**
- (청년인구 유출) 20대의 수도권 순유입 비율이 전체 연령 중 가장 높음 → **전입 사유 1위 직업, 2위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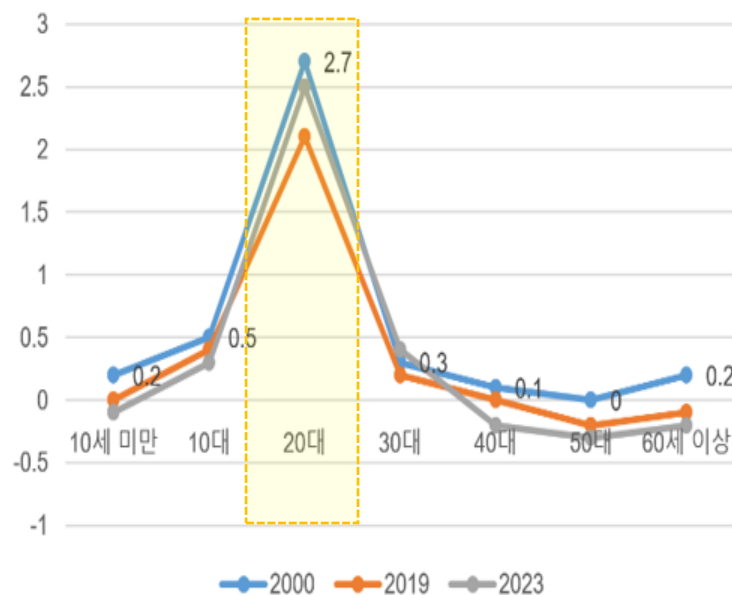
수도권 인구비중
51%
국토면적은 11.8%

수도권 지역 내
총생산 **52.9%**
(1,137조원 규모)

상위 1%
근로자 **76.8%**
(15.6만명) 수도권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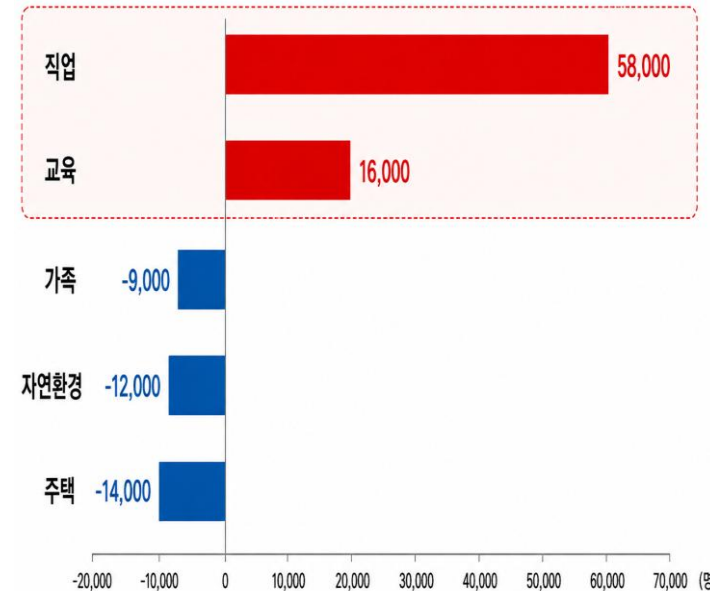
1,000대
기업본사 **75%**
수도권 소재

▷ 수도권 연령별 순 이동 추이(%)



※ 출처 : 국가데이터처, <연도별 국내 인구가동통계> 재구성 (2025.1 공표 기준)

▷ 수도권 유입 사유별 순 이동 규모(명)



※ 출처 : 국가데이터처, <2022년 국내 인구가동통계> 재구성

지역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를 의미

지역대학 미충원 심화→재정여건 악화→교육투자 감소→우수인재 유출→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



위기를 **기회**로,

지역대학 변화를 통한 지역 혁신 촉진

2. 지역소멸 위기, 지역대학의 중요성 – 지역대학의 역할

전 세계의 학술생태계와 경제를 이끄는 **대학-기업-지자체** (Triple Helix)



2. 지역소멸 위기, 지역대학의 중요성 – 지역대학의 역할

❖ 전 세계의 학술생태계와 경제를 이끄는 **대학-기업-지자체 (Triple Helix)**

리서치 트라이 앵글 파크 (Research Triangle Park)

Research Triangle은 이 지역의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산업을 지원하는 연구 중심지**를 조성하려는 노력

※ Research Triangle Development Council 회의록 (1955.5.27.)

• (정부) 강력한 톱다운(Top-down) 리더십 및 인프라 구축

담배/섬유/가구산업에 의존하던 노스캐롤라이나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대학-산업협력 단지 조성 (부지 무상 제공, 세금감면, 글로벌 기업 유치 등)

• (대학) 3각 축을 통한 우수 인재 및 기초 연구 공급

듀크대학교(의학/바이오),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공학/농생명), 노스캐롤라이나대(기초과학)의 세계수준의 연구성과 및 우수 석·박사 인력 배출

• (산업) 글로벌 R&D 집적 및 자생적 스타트업 생태계 진화

IBM, 시스코, GSK 등 글로벌 대기업 연구소 밀집 및 융합연구 진행
대기업과 함께 유능한 창업가 유입으로 역동적 '스타트업 허브' 생태계 진화 성공

• (기업) 1970년 이후 현재까지 **385개 이상** 기업 유치

- ICT · AI · SW 분야 : IBM, Cisco System, Lenovo, NetApp, SAS institute 등
- 바이오 · 제약 분야 : Eli Lilly, GlaxoSmithKline (GSK), Biogen 등
- 임상 · 헬스케어 분야 : IQVIA, RTI International, Syneos Health 등
- 반도체 · 전자 분야 : IBM, Wolfspeed, Analog Devices, Qualcomm 등

• (경제) **251억 달러** (약 34조 원) (GRDP의 4.1%, '23년)

• (고용) **약 55,000 명**

• (인구) 2030년까지 **268만 명** ('20년 118만원 대비 ▲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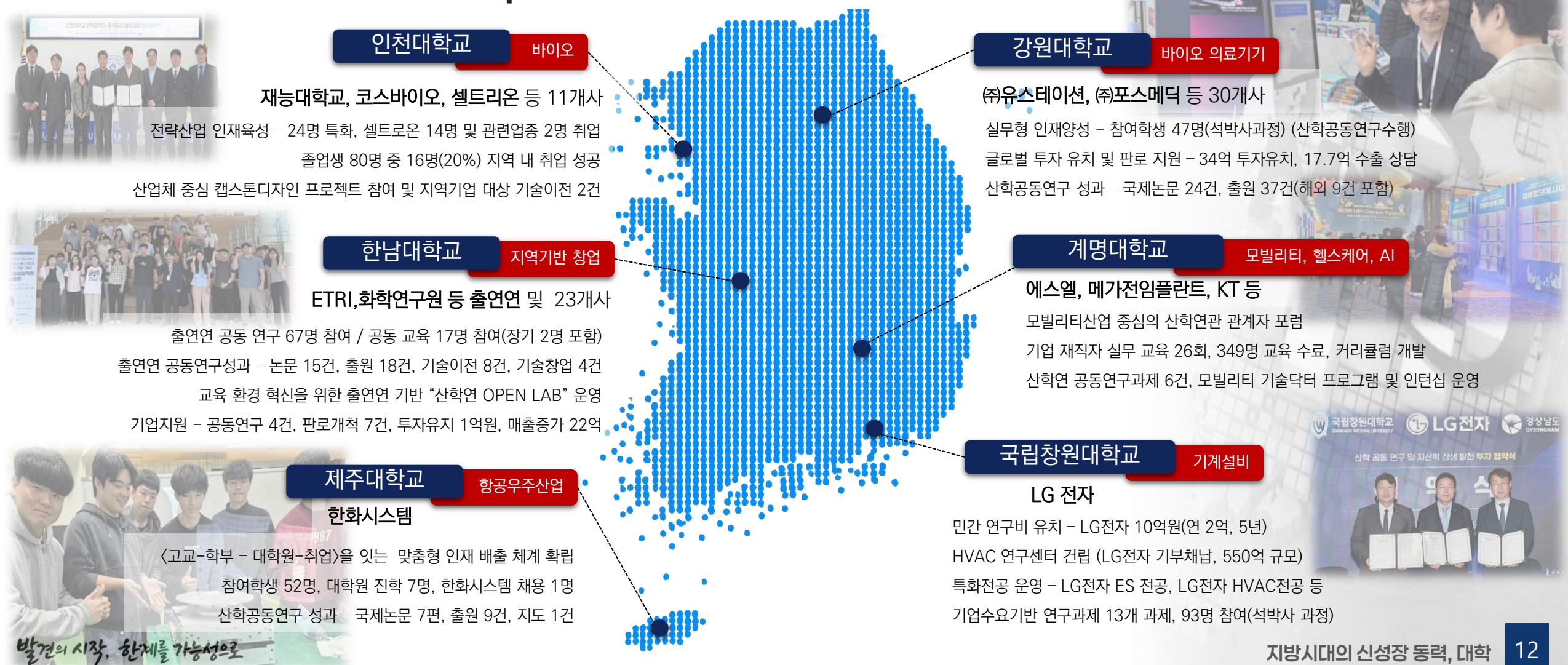
- '40년까지 100만명 인구 유입으로, 향후 15년간 40만 가구 주거 개발 검토

• (교통) 미 연방 보조금 2,500만 달러로 교통 인프라 확충 중

※ RTP 3.0 VISION PLAN(Research Triangle Park, 25.12.), RTP website(rtp.org)

2. 지역소멸 위기, 지역대학의 중요성 – 지역대학의 역할

한국형 트리플 헬릭스(Triple Helix)의 성공을 꿈꾸다 - 부상하는 RISE



2. 지역소멸 위기, 지역대학의 중요성 – 지역대학의 역할

❖ 한국형 트리플 헬릭스(Triple Helix), 화성·안성에서 새로운 걸음을 떼다

재단·지자체가 함께 하는 **대학 X 기업 커넥트 데이 (Connect Day)** 개최

대학이 보유한 원천기술과 지역 기업의 기술수요를 연계해 기술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산학연 협력 Connect Day** 개최

- **(재단) 대학 기술이 적용 가능한 지역의 수요기업 발굴 지원**
한국연구재단 기술사업화센터(NRF-TCC) 참여 지역 대학의 유망 기술 소개/매칭 및 테크비즈 파트너링 행사 개최
- **(지자체) 지산학 협력 기반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 모델 발굴**
(화성특례시) 첨단 산업 직접단지(테크노폴) 조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 모색
(안산시) 지능형 첨단로봇 및 스마트 제조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방안 모색
- **(대학) 보유 기술을 통한 지역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지역 산업에 전략기술 공급을 통해 지역-대학간 동반성장 지원, 대학의 기술사업화 성과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학 및 지역산업과의 협력 강화



- **(화성) 대학기술 X 지역산업 커넥트 데이 ('25.6.)**
 - 연구재단-화성특례시 기업 경쟁력 강화 협약(MOU)
 - 참여대학 기술지주(주)-화성진흥원 기업육성 협약(MOU)
 - 지역 중소기업 자문 관련 산학협력코디네이터 위촉(10인)
 - 테크비즈 파트너링(기술 상담회, 전략세미나) 운영→ **수요기업 발굴 34건, 기술매칭 108건**
- **(안성) 대학기술 X 지역산업 커넥트 데이 ('25.11.)**
 - 연구재단-안산시 업무협약(MOU) 체결
 - 19개 대학-경기테크노파크-안산상공회의소-스마트 허브경영자협회 기업 육성 협약(MOU)
 - 지역 중소기업 자문 관련 산학협력코디네이터 위촉(17인)
 - 테크비즈 파트너링(기술 상담회, 전략세미나) 운영→ **우수 기술발표 11건, 기술매칭 14건**

03. 국정 방향

3. 국정 방향 – 역대 정부 지역대학 육성정책

✓ 참여정부 이후 지난 20년, 5개의 정부 동안 정원 감축의 75% 이상이 지역대학

→ 이제는 ‘단순 정원 규모 감축’이 아닌, ‘**지역대학이 지역경제·산업·정주 거점으로서 어떤 파급효과를 내는가**’를 증명할 때

참여정부

2003-2008

지방대 육성 별도사업,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정원감축 71,134명
(85.3%가 지방)

주요 재정지원 사업

NURI, 수도권대학특성화

이명박정부

2008-2013

대학 자율화·경쟁 촉진,
대학재정지원제도 도입

정원감축 36,214명
(78.6%가 지방)

주요 재정지원 사업

ACE, 대학교육역량강화,
LINC

박근혜정부

2013-2017

대학구조개혁평가(5개 등급),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정원감축 61,035명
(76.7%가 지방)

주요 재정지원 사업

PRIME, CORE,
지방대 CK

문재인정부

2017-2022

대학기본역량진단,
정원 증원 및 재정지원 제한

정원감축 12,291명
(78.5%가 지방)

주요 재정지원 사업

RIS, LINC+
국립대육성, 대학혁신

윤석열정부

2022-2025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RISE 체계 구축

정원감축 16,000명
(88%가 지방)

주요 재정지원 사업

지방대학 활성화,
LINC3.0, HIVE

이재명 정부

2025-

(국정과제 55)

지역교육 혁신·거점대 육성,
RISE 재구조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확립
RISE체계 재구조화

주요 재정지원 사업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
거점 국립대 패키지

3. 국정 방향 –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방향

✓ 현정부에서 지역대학의 역할은 더 이상 '지역 균형 발전' 만을 의미하지 않음

→ 지역대학 지원은 곧 **'(사회정책 목표)지역 균형발전 + (혁신경제 목표) AI/과학기술 국가경쟁력에 기여'** 하는 교차점

1 국가비전/원칙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과 철학을 제시하는 최상위 지향점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1 비전

2 5대 국정목표

국가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목표 영역 설정

5 목표

3 23대 추진전략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향 및 접근 전략

23 전략

4 123대 국정과제

추진전략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 및 사업

123 과제

5대 국정목표 및 23대 추진전략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AI 3대 강국 도약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성장을 복돋는 금융혁신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3. 국정 방향 –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방향

- ✓ 고등교육 관련 3대 국정과제는 상호 연계되어 「기초연구 + 지역대학 질 제고 + AI 인재양성」으로 **통합적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 ✓ RISE체계는 2026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재구조화되어, **인재의 지역 정착**이라는 **정책 지향성** 한층 강화

과제 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인재강국

- 기초연구 과제 1.5만 개 확대
- 청년 연구자 성장 3종 패키지
- Brain to Korea 해외 인재 2,000명 유치

과제 55 지역교육 혁신·거점대 육성

- 서울대 10개 만들기
- 거점국립대 집중 투자
- RISE 재구조화 및 초광역 거버넌스

과제 99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 AI+X 융합 교육 확산
- 디지털 100만 핵심 인재 양성
- AI 거점대 운영 및 산학 연계 계약학과 확대

04. 지역대학을 지역성장의 엔진으로

4. 지역대학을 지역성장의 엔진으로 – 재단의 지향점

✓ 이에, 경영전략 – 4 HY (For Hyper – Hub, Way, Effect, Spirit)) 을 통해 **지역·대학 혁신을 NRF 지향점으로 설정**

4 HY 전략 (For Hyper – Hub, Way, Effect, Spirit)

발견의 시작, 한계를 가능성으로

HYPER – 극한(초-)의 속도, 발전을 지향하여 혁신 미래(차원)으로 도약

초차원	초도약	초신속
선도형 학술·연구 생태계 혁신으로 초차원적 新 지식 및 가치창출	개방형 혁신 성과 창출을 통한 국가 미래 경쟁력의 초도약 견인	조직의 자주성 및 전문성 무장으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환경변화 대응

Hyper - Hub	Hyper - Way	Hyper - Effect	Hyper - Spirit
연구개발	인재양성	연구기반·성과	기관경영
최고 이상의 R&D 혁신 및 성과 창출	지역과 대학의 미래 혁신 방향 정립	새로운 기준과 협력으로 국민 기대성과 확산 활용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지속가능성 강화

HYPER-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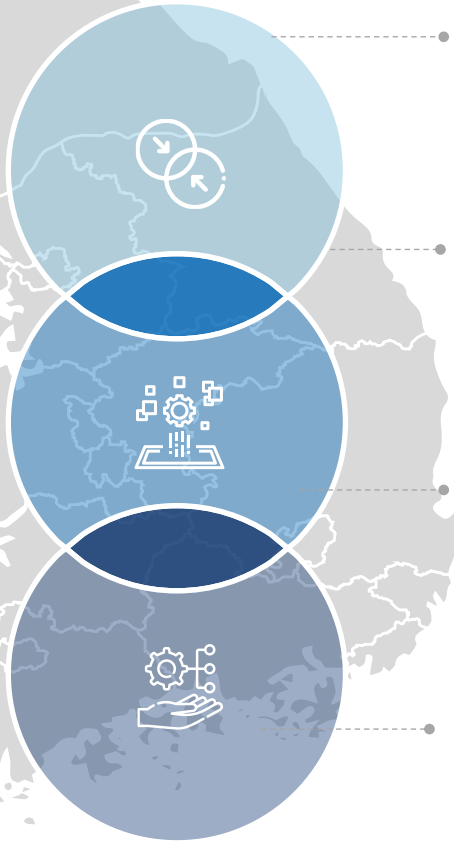
대학 및 지역 혁신 발전 생태계 조성

- 대학 중심 연구 저변 확대 및 지역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으로
국가 균형발전 초석 마련

분야의 경계를 허무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 분야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통해
사회·산업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

4. 지역대학을 지역성장의 엔진으로 – 4대 중점방향



1. 지역 거점 국립대를 자산학연 협력 허브로

- ▶ 지역 거점 국립대 중심 브랜드 단과대/AI거점대/5극3특 공유대학지원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AI 거점대

2. 특성화 지역대학을 지역 중심 성장 엔진으로

- ▶ 지역 사립대 특성화 학과 중심의 교육여건(교육과정, 인프라 등) 개선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3. 초광역 거버넌스(ANCHOR)를 지역 혁신 기반으로

- ▶ RISE체계의 5극 3특 단위 초광역체제 확장

ANCHOR 체계 전환

4.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를 전국이 함께 도약하는 체제로

- ▶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범부처 협의회 구성, 법제화/혁신 규제 개선 지원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 거점국립대 투자 확대 및 제도 혁신을 통한 지역 성장 뒷받침

- 교당 최대 연 1,000억원*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성장엔진 산업의 우수인재 및 혁신기술 확보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및 AI 거점대학 지원 사업

✓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 대학 및 연구 거점 육성

- 산학일체형 브랜드 단과대 육성
- 성장엔진기업 특성화 융합연구원 설립

사업: 국립대 육성 (연구중심대 인센티브)
규모: 교당 연 400억원 내외
기간: '26 ~ '30년(2+3년)

✓ 지역 AI 교육/연구거점 육성

- 대학 AI 교육/연구 구심점 확립
- AI 융합교육 운영, 지역AX연구수행

사업: AI 거점대학
규모: 교당 연 100억원 내외
기간: '26~'30년(2+3년)

✓ 성과 확산으로 지역대학 동반성장 지원

- 5극 3특 공유대학 협력 확대
- 공동 교육, R&D, 인프라 개방 확대

체계: ANCHOR (5극3특 공유대학)
규모: 교당 연 100억원 내외
기간: '26~'29년(4년)

• 거점국립대육성사업, 글로벌거점국립대사업 지원예산(약 400억원) 포함

4-2. 특성화 지역대학을 지역 주도 성장 엔진으로

❖ 지역 주도 성장을 견인할 특성화 지역대학 육성

- **비수도권 사립대학(대학혁신 참여대학) 재정 지원**으로 대학 주도의 지역 특화 산업 활성화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FIRST)

✓ 지방 대학 체질개선 및 기반구축

- 대학 중장기 발전과 연계한 구조개선
- 대학별 전략분야 중심 학과 재구조화
- 비교우위 학과 중심의 역할 조정

✓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특성화 전략 수립

- 대학별 특성화 범위 및 방향 자율설정
- 특성화 교육과정 및 인프라 집중 투자
- 지속가능성을 위한 성과 환류 체계 마련

✓ 과감한 재정지원 및 규제특례

- 우수교원 확보 등 교육 · 연구환경 개선에 재정지원 확대
- 선제적 규제 발굴 및 규제 특례 적용

'26년 총 850억원 / 15개교 선정 , 지원기간 5년 ('26 ~ '30년, 2+3년)

4-3. 초광역 거버넌스(ANCHOR)를 지역 혁신 기반으로

❖ 지역 산업과 국립대-사립대 동반성장을 위한 RISE 체계 재구조화

- **생활권, 산업/경제권단위(5극 3특)**로 확대하고,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인재양성 등 성과 창출에 집중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ANCHOR)

✓ 성과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시도별 사업 재구조화

- 폐지 과제 재원, 환류/인센티브 예산을 활용해 학생 중심 신규과제 편성

[지방정부 자율 인재육성 예산] 기본배분 8,500억원,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4,000억원, 매칭 인센티브 1,000억원

✓ 중앙 주도의 5극 3특/ 초광역 인재육성

- 지역대학간 전략 산업분야 교육/연구 협력 지원
- 5극 3특 성장엔진 분야 인재양성 모델 발굴/지원

[초광역 인재양성 예산] 5극3특 공유대학 1,200억원, 초광역 성장
엔진 800억원, 특성화 지방대학 3,722억원, 첨단분야 2,060억원

‘26년 총 2.14조원 규모의 지역대학 재정 지원으로 권역을 넘나드는 전국 단위 인재 육성

4-4.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를 전국이 함께 도약하는 체제로

❖ 단순 재정지원을 넘어, 제도와 거버넌스로 지역 균형 발전 체계 마련

범부처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 법제화

국립대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가칭)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

✓ 혁신 규제 개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으로
규제특례 제공,
특성화에 필요한 우수교원 확보 ·
교육과정 혁신에 유연성 부여

✓ 범부처 협력

국무총리 중심 범부처 추진협의회 운영
및 거점국립대 패키지 선정

자율성(규제특례)와 안정성(법제화)의 동시 추진으로 지역 대학의 실질적 변화 유도 및 지속가능성 확보

드리고 싶은 말씀

“지역의 **심장**이자 **엔진**으로서의 대학”

지역의 위기는 곧 대학의 위기이며
대학의 소멸은 곧 지역의 붕괴입니다.
지역대학은 더 이상 연구를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산업에 피를 돌게 하는 심장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